

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발위로 1614(상림동 60)

2025년 3월 21일(금) 제 3059호



도의회 탄소중립 제1차 기획포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 제1차 기획포럼을 개최했다.(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의회>

군산항 국제물류 중심 항만 집중 육성

군산항,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 전략 추진
포트세일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 특송화물 통관장 확대 운영
수심 확보 위한 준설예산 확대, 제2준설도 투기장 신속 추진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올해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세일 추진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 △특송화물 통관장 규모 확대 건의 △준설 예산 확대 및 제2준설도 투기장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항 포트세일은 전북도, 군산시, 군산해수청,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등 유관기관 합동 포트세일단을 구성, 국내외에서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국내 주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마케팅을 추진하고 국외를 방문하여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군산항 홍보설명회 개최, 화물유치 등 투트랙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항의 전략화물(컨테

이너, 자동차, 우드패킷)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군산항의 잠재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항은 계속되는 토사 퇴적 현상으로 수심 부족 현상이 발생해 물동량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준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항만의 운영·배후단지 관리·포트 세일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준설 전문 운영기관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도는 용역비를 확보해 지역경제 효과·재정자립도·사업성 등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특송화물 통관장 규모 확대하기 위해 작년 2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개장으로 전년 대비 340% 급증한 약 700만 건의 특송물류를 처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군산항이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송업체를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송업체에 대한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올해도 특송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안부, 관세청에 통관장 규모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과 시설 확대를 건의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항은 토사 퇴적에 따른 계획수심 확보가 어려워 대형선박 입항 기피 등 항만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심 확보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공조해 군산항 유지 준설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기를 위해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 사업도 올해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 및 착공 등을 통해 '27년에 단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군산항이 국제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우수사례 선정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연계해 시너지 창출
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전북자치도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20일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받았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3 유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은, 전북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 인재를 공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기회발전

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전북글로벌 특성화고 운영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을 추진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전북글로벌 특성화고를 운영하여 신산업·신기술 융합형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북자치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청-직업계고-기회발전특구 기업-대학-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지 기자

도, 정책자금 1천482억 지원...축산농가 사료비 경감

신규 사료구매 기존 외상금액 상환 자금 융자지원 연리 1.8%
한우육우, 젓소, 양돈, 기금농장은 최대 6~9억원 지원

전북자치도가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482억 원을 상반기 중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축산농가가 신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에 상 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사료를 외 상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한우우·젓소·양돈·기금농가는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육두수·기존 대출 잔액·지원 한도 등을 검토해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우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기존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이용 농가 대상으로 축종·사육 규모 별로 융자 실행액의 0.4%~1.8%까지 차등 적용해 대출금 이자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안에 합의해서 처리한 것은 18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

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고 특위는 국회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힘이 맡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지속가능한 물산업 발전 전략 추진

2025년 세계 물의 날 맞아 ‘물산업 관련 토론회’ 개최…스마트워터그리드 도입 등 지역 특화 정책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0일 도청 중회의실에 전북 물포럼 위원, 물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이 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북 용수공급체계 개선 ▲물산업 방향성 제시 ▲2025년 전북물포럼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물자급을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새만금 스마트워터그리드 도입, 스마트팜 물순환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전북의 물산업 경쟁력을 높

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물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들은 지역 내 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금현 도 환경산업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북의 물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전북물포럼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물관리 전략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물포럼은 2021년부터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전북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지역 물 관련 전문가들이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 전북 물포럼 위원, 물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지역 물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현안 해결, 정책 발굴, 통합 물관리 대응 방안 마련 등 전북 지역에 특화된 물

/김은지 기자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 모색

제1차 기획 포럼 개최,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기후대응기금 등 지역 맞춤형 해법 논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 제1차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특위 위원,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수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주제 발표자로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각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탄소중립과 예산운용’을 주제로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효과적인 탄

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회에서는 좌장인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북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활용 방안과 지방정부 차

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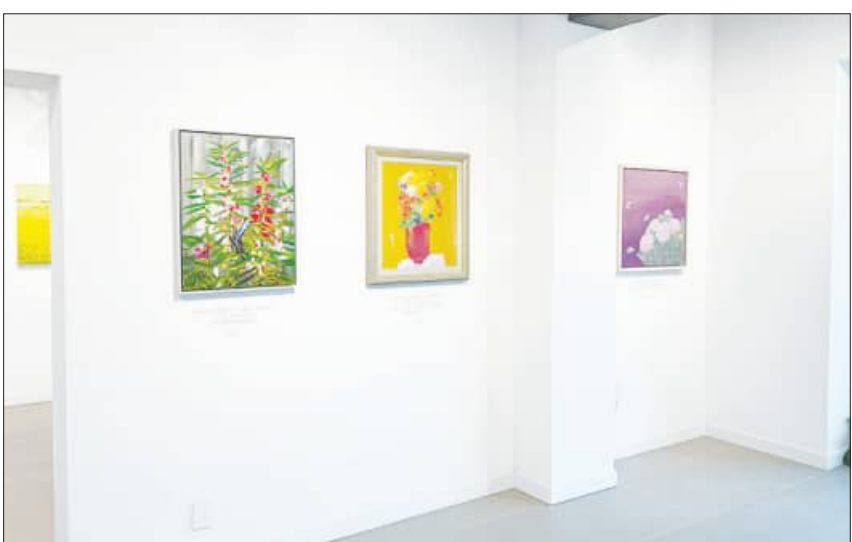
도문화재단, 내달 27일까지 하안양옥집서 ‘가지각색, 꽃’ 기획전시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운영하는 하안양옥집에서 2025년 첫 기획 전시 ‘가지각색, 꽃’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공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4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첫 전시는 “꽃을 그리는 마음과 봄을 맞이하는 마음이 같은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진솔한 삶과 마음의 이야기를 도민 및 관광객과 나누고자 기획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북일보의 지역 소멸 위기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났다’와 협력해 의미를 더했다. 청년 인구가 단 한 명도 없는 완주군 고산면 화정마을 할머니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매화꽃, 백



합, 달리아, 수선아, 무궁화, 튤립,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 그림 23점을 직접 그렸다. 그림 속 꽃들에는 할머니들의 소중한 추억과 삶의 이야기가 담겼으며, 외로움을 희망으로 바꾼 따뜻한 손길이 묻어난다.

이경윤 대표는 “하안양옥집은 도내 예술

인과 도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전시가 도민들에게 외로움을 넘어 따뜻한 봄의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윤준병 의원, 목재산업계 제도개선 방안 논의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현중 회장 등은 윤 의원에게 목재의 날 제정에 대한 입법을 건의했다.

세계 목재의 날이 매년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돼 목재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목재의 효능성을 홍보하고 목조건축, 국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제주시지역본부, 이영희 본부장 취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지난 19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7대 신임 이영희 본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영희 본부장은 ‘소통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본부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꼼꼼한 행정 처리로 지역본부의 내실을 단단히 다지고,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조직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해 보

험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요구에 부응해 청렴·윤리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으며, 특사경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을 지역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며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목재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목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해결해 업계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인력 수급 곤란으로 인해 떨어져가는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목재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목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봄철 화재

부주의로 인한 화재 함께 실천한다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

조리중 자리비우지 않기

취침전 향초, 촛불 등 끄기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전북도,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성료

4개월간 6개 시군 순회, 지역 맞춤형 식품산업 발전 논의…실질적 사업 발굴·추진 목표 운영

홍삼·레드푸드·치즈·미생물 등 6개 시군 특화산업 집중 육성…전략사업 본격 추진

전북자치도는 지난 19일 무주천마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최종 회의를 개최하며, 4개월간의 자문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은 각 시군의 특화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전문가 협의체로,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목표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진안군을 시작으로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시군별 전략 식품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사업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진안 K-홍삼 혁



전북자치도는 지난 19일 무주천마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최종 회의를 개최하며, 4개월간의 자문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플랫폼 구축 ▲장수 레드푸드 농식품 스마트융복합타운 조성 ▲남원 추어푸

드 생태계 구축 ▲임실앤치즈·낙농 산업지구 조성 ▲순창 발효미생물 농생명 지구 클러스터 육성 ▲무주 천마 거점화 단지 조성이 논의됐다.

특히, 도는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 사업인 ▲진안 명품홍삼 전시관 조성사업 ▲남원 추어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순창 발효미생물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하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자문단 회의는 동부권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소민 기자

한농공무장,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영농은퇴시 농지매매대금 + 추가 ha당 연 600만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무진장지사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 이장단회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방문홍보활동과 사업대상자에게 우편물 발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

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 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063-350-703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북자치도, 자활생산물 시군 순회장터 운영…판로 확대 지원

지역 농산물 활용 30여 종 제품 전시·판매, 판로 개척 및 인지도 제고…군산시 올해 첫 런칭

전북자치도는 20일 군산시청에서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 주관 ‘자활생산물 시군 순회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는 자활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전북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품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군산시청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 한입푸드 누룽지세트 △군산 생선선생 △군산한마음 별달·보드레 도시락과 포케 △익산 호두과자 △부안 노을초코 수제초코파이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30여 종의 자



전북자치도는 20일 군산시청에서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 ‘자활생산물 시군 순회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활생산물이 전시·판매됐다. 자활생산물은 유통마진이 없어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직한 생산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도내 14개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매월 1회 이상 자활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장석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활센터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 전주비전대학교와 공간정보 혁신인재 양성 ‘맞손’

RISE 운영 업무협약…인재양성 위해 양 기관 보유자원 공동활동·공동연구·교육지원 추진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박희도)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가 지역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20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LX공간정보연구원 박희도 원장과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주



력산업 성장 및차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골자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DX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협업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역 정주형 취업·창업 지원체계 구축 등 일자리 창출과 동반 상생을 위한 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간정보연구원 주관 ‘제1회 공간정보 AI 인재양성 경진대회’에서 비전대학교 학생들은 ‘재난대피소의 위치분석 및 안전성’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준호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정문 진입광장 명칭 공모전 개최

포상금 총 50만원 지급…21일부터 27일까지 전주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응모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황수동)는 전주수목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정문 진입광장’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와 협력해 추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혼잡했던 수목원 진

입로가 한국 전통미를 담은 진입광장으로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사업 성과를 알리고 어울리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21일부터 27일 18시까지 전주수목원 홈페이지(www.ex.co.kr/arborescence)에서 응모할 수 있다. 총 23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최우수상 1건(10만원), 우수상 2건(각 5만원), 장려상 5

건(각 3만원), 입선 15건(각 1만원) 등 총 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수목원 정문 진입광장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3개월·6개월 기간별 최고 연 2.90% 금리 ‘봄날 특판 예금’ 출시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봄맞이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봄날 특판 예금’을 출시한다.

2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판매하는 이번 ‘봄날 특판 예금’은 가입기간을 3개월과 6개월로 세분화해 단

기 예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3개월과 6개월 모두 최고 연 2.90%(기본금리 연 2.55%) 금리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총 판매한도는 2,000억원이며 판매한도 초과 시 해당 일까지 판매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으

로 가입액은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20여원을 한도로 한다.

최고 연 0.35%가 제공되는 이벤트 우대금리의 경우 개인고객이 해당 예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1%, 수시입출금계좌의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 충족 시 연 0.25%제공된다. 법인고객은 수시입출금계좌의 평균잔

액 500만원 이상 충족 시 연 0.25%, 평균잔액 1천만원 이상 충족 시 연 0.35% 제공된다.

해당 이벤트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제좌에 한해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쓱뱅크 및 영업점, 고객센터(1588-44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한전군산지사,반부패·청렴 실천 협약및 이행각서 교환식

한국전력 군산지사(지사장 황수동)는 지난 19일 고·저압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반부패·청렴 실천 협약식을 시행하고 청렴이행각서 교환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문화 공유 및 반부패·청렴

활동 공동 노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도 개선과 관행 타파를 위한 상호 간 적극 협조가 강조됐다.

이날 군산지사 황수동 지사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청렴한 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임실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임실군(군수 심민)이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 관내에서 자발적 봉사를 펼치시는 봉사원님의 수고를 통해 적십자 회비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 회비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금된 성금은 도내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안전교육 사업 등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최준호 기자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천사히어로즈, 전국 지자체서 '주목'

정읍시의 대표 관광시설인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국민여가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의회 군의원(의장 김경제)과 관계 직원들이 관광시설 운영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읍시를 방문하며 이들 시설이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천군의회 관계자들은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 위치한 천사히어로즈와 국민여가캠핑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성공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은 '2023년 지자체·공공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된 바 있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2015년 8월 개장한 국민여가캠핑장은 약 3만㎡ 규모로 이글루형 캠핑장, 오토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등 82편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넓은 잔디광장과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분수소, 실개천과 발담금디 등 자연 친화적 요소를 더해 가족 단위 캠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함께 자리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도 전북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시설로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국민여가캠핑장과 천사히어로즈 주위를 운행하는 순환열차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돼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신청

군산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되는 195,522필지로 토지 지번별 1㎡당 토지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대상지는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등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접수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거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정읍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총 32만 7165필지로,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선정됐다.

해당 열람 지가는 시청 공시지가상황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9일까지 시청 공시지가상황실이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봄의 절정 '2025 정읍벚꽃축제'

꽃·사람·다채로운 먹거리·체험거리 어우러진 봄 축제… '정다운 벚꽃주막'여운 이어져

정읍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2025 정읍벚꽃축제'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정읍천 벚꽃로와 정읍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낭만벚꽃, 낭만정읍'으로 벚꽃이 만개한 정읍천에서 아름다움과 힘이 있는 힐링 축제로 꾸며진다.

정읍천 벚꽃로는 정읍IC 사거리에서 상동교까지 4km에 이르는 벚꽃 명소로, 2000여 그루의 벚나무가 봄이 오면 장관을 이룬다. 시는 지난 1991년부터 매년 벚꽃축제를 개최해오며 전국적인 봄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축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최근 인기 키워드인 '웰니스'를 연계해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장에는 정읍의 건강해 의견을 내었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은 '2023년 지자체·공공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된 바 있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요가와 심잉볼과 꽃차를 이용한 명상 체험 등도 준비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 정읍벚꽃축제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정읍천 벚꽃로와 정읍천 일원에서 열린다

벚꽃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벚꽃 아이스크림과 솜사탕이 준비되며, 70~8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복고 풍 의상 대여 공간도 마련된다.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을 위해 놀이마당도 운영돼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주말인 5일과 6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샘골다리에서 달하다리 약 1.4k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곳곳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화려한 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서동축제, '무왕행차 퍼레이드' 참가팀 모집

'왕의 탄생' 주제… 지역·국적 상관없이 10명 이상 구성된 단체 총 상금 1,000만 원 규모

익산서동축제가 시민과 함께 백제 무왕의 탄생 이야기를 화려하게 재현한다.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5 익산서동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왕행차 퍼레이드' 참가팀을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왕의 탄생'을 주제로 오는 5월 3일 오후 5~7시 여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화려하게 펼쳐지며, 퍼레이드 이후 축제의 개막 선전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전문 공연단과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 참가팀이 어우러져 무왕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역사적 의미와 축제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우편(punnyarts@naver.com)이나 네이버폼(m.site.naver.com/1DCG2)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팀은 퍼레이드 당일 행진과 공연을 선보이며, 심사위원 평가와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선호도 조사는 빠른 응답, 이른바 큐알(QR) 코드 방식으로 현장에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팀에게 수여되는 총상금은 1,000



만 원 규모로 ▲1등(1팀) 300만 원 ▲2등(1팀) 200만 원 ▲3등(3팀) 각 100만 원 ▲4등(4팀) 각 50만 원을 지급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2건 선정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 산업단지 간 일자리 격차 해소 기대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 총 2건에 선정되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로써 군산시는 도비 4억 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공모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발표·제안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 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

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군산시는 이 사업에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 특구 지역 내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적기의 인력 수급과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층에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달 말 개소식을 진행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기업의 숙련 수준별 인력 수요를 사전 진단하여 고용서비스 제공 적기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은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이하 '센터')와 협업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군산 시 산업단지 간 일자리 격차 해소 ▲인력 배분 최적화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025년 2단계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사무지원·사업운영지원·환경정비 3개 분야 101개 사업 총 157명 선발…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정읍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해 '2025년 2단계 정읍형 상생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번 사업에서는 사무지원, 사업운영지원, 환경정비 등 3개 분야에서 총 101개 사업 운영을 통해 157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1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는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참여 횟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근무 조건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60세 이하는 주 30시간, 61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지급은 1만

30원이 지급되며, 하루 5000원의 부대경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또한, 나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방법용 CCTV 지능형(AI) 선별 관제·이상 음원 장치 융합 운영 사례

군산시는 '2025년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했으며, 지역 안전 기반 시설로의 CCTV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기존 통합관제센터 업무의 경직성을 탈피한 운영개선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4건의 우수사례를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 합동심사단에서 1차 평가를 거쳐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어 '25년 CCTV 통합관제 콘퍼런스' 행사에서 2차 발표시사를 진행하였다.

군산시는 창의·융합성 분야로 '방법용 CCTV 지능형(AI) 선별 관제와 이상 음원 장치 융합 운영'이라는 우수사례를 접수해 1차 심사를 통과하였고, 2차 발표심사에서 우수상을 최종 수상하게 되었다.

군산시 스마트도시과 조기형 주무관은 "통합관제 CCTV 운영의 효율성 및 관제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 발생시 자동으로 탐지하여 관제요원이 정확하고 빠른 판단이 가능해져 긴급 상황대처 능력이 향상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미래 신성장 산업 동력 발굴 속도 내다

지역 내 혁신·연구기관장·대학 산학협력단장 간담회 진행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역 내 혁신·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시와 관계 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열린 간담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플라스마기술연구소, 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각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역 내 12개 혁신·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사업 초기 수요 둔화(Chasm)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 보고, 다양한 주제로 군산의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제안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센터 구축 사업 ▲중고 굴착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제조 플랫폼 구축 ▲친환경 유무인 운송수단(모빌리티) 제조 혁신지원센터 구축 ▲합정성능개량 산업단지 구축 ▲자율주행 상용차 실환경 모사 기반 구축 ▲이차전지 제조 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간담회 후 군산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제안을 정리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들과 함께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말과 교감하며 힐링해요' 익산시, 학생 승마체험 운영

익산시가 지역의 우수한 승마 기반을 활용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시는 새학기를 맞아 지역 초·중·고 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을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올해 모집 인원은 일반승마 950명, 사회공익승마 30명 등 총 980명으로 오는 31일까지 호스피아(www.horsepia.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마체험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다년간 경험과 승마 자격증을 보유

한 지역 승마장 4곳에서 운영된다. 체험은 ▲이론 수업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승마 실습 등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계적으로 말과 친숙해지며, 정서적·신체적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승마의 경우 체험자 본인 부담금은 9만 6,000원이고, 사회공익승마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무료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신속집행 총력

익산시가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보증금 인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선금 지급 기준을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완화하고, 기성금 지급방식도 기존 30일 간격 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보증금 인하도 진행해 입찰보증금은 기존 5%에서 2.5%로 낮아지고, 계약보증금도 10%에서 5%로 완화된다.

공사이행보증금은 기존 40%에서 20%로 줄여 지역 업체의 계약 체결 부담을 줄인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건설·공공조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사랑카드 월 발행액 대폭 확대

4월부터 월 23억 원 발행, 매달 10억 이상 발행액 확대

완주군 민생안정금 이어 경제 부양책…소비 촉진·소상공인 지원 강화

완주군이 '완주사랑카드' 월 발행액을 10억 이상 늘린다.

21일 완주군은 민생경제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완주사랑카드' 월 발행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사랑카드는 완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충전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군은 완주사랑카드를 13억 원을 발행(카드 12억 원, 지류 1억 원)해

왔지만 4월부터는 23억 원으로 발행(카드 22억 5,000만 원, 지류 5,000만 원)한다. 매달 10억 이상 발행액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군은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사랑상품권 월 발행액 확대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

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2일부터 1인당 3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적시 지급해 소상공인,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구제역 확산 방지 총력…긴급 대책회의 개최

최영일 군수, 신속 방역 지시…비상상황실 운영·거점소독시설 설치·백신 접종 강화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9일 전남권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와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남상국 순정축협 조합장, 군 축산방역 부서장 및 담당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군수는 "구제역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순창군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군수는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방역 비상 상황실 운영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백신 일제접종 ▲소독 시설 및 방역 물품 지원 ▲축산농가 홍보 등 대책에 대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축산 농가의 방역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독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했다. 군은 방역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행정



최영일 군수는 지난 19일 전남권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와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인력을 적극 투입하고, 축산 농가의 소독시설 점검과 함께 방역 홍보도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가장 강조했다. 최 군수는 "전남권에서 발생한 만큼 군 경계에 있는 육과, 담양에 신속한 차단방역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도축장 교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권 도축장 이용을 자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순창군은 농업기술센터에 방역비상 상황실 운영을 상향 해제 시까지 운영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 화장기 대회서 입상

남자팀 銀·여자팀 銅 획득…여자팀 창단 후 첫 단체전 입상

순창군청 남녀 소프트테니스팀이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6회 화장기 소프트테니스 대회 실업팀 단체전에서 동반 입상의 쾌거를 이뤘다.

지난 19일 열린 여자 실업팀 준결승전에서 순창군청은 안성시청을 상대로 접전을 펼쳤으나 1대 3으로 아쉽게 패배했다. 하지만, 이날 치러졌던 복식 경기에서 하야시다 리코 선수와 신유나 선수가 값진 승리를 거두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창단된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이 첫 단체전 입상을 기록한 것으로, 팀의 재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남자 소프트테니스팀도 같은 날

진행된 준결승전에서 강호 수원시청을 3대 1로 격파하며 결승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순창군청의 진인대 선수가 단식과 복식에서 경기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빼어난 경기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결승전에서는 순천시청을 상대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나 1대 3으로 패배하며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설윤수-서범규 선수는 복식 경기에서 순천시청의 추문수-류태우 선수를 5대 4로 꺾으며 선전했지만, 네 번째 단식 경기에서 준결승전부터 맹활약한 진인대 선수가 추문수 선수와 접전을 펼쳤으나 3:4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KBS 전국노래자랑' 순창군편 예심 참가자 모집

'KBS 전국노래자랑 순창군편'이 13년 만에 순창군에 다시 온다.

이번 순창군편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순창발효테마파크 천년광장에서 공개녹화로 이뤄지며, 우천 시에는 순창 장애인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순창군민들은 이달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0팀 한정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참가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예심은 4월 13일 오후 1시 순창향토회관에서 개최되며, 이날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5~16개 팀이 최종 선발된다. 본선 경연은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순창발효테마파크 천년광장에서 공개녹화로 진행된다.

이번 전국노래자랑 순창군 편은 오는 6월 이후 KBS1 채널을 통해 전국방영될 예정이다. 특히 배일호, 문연주, 안성훈, 예능, 김주리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 5명이 특별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읍·면 행정복지지나 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23)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탄핵 단식 20일차 병원 이송



단식 20일차를 맞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의식 소실 증상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의 파면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최근 동료 의원들의 만

류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저체온증, 오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면서, 이날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동료 의원들은 즉시 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이송 조치를 취했다. 현재 이 의원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식목일 앞두고 철쭉 8천여 그루 식재

완주군이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갖고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20일 완주군은 기후변화에 따라 나무심기 행사를 앞당겨 산례을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군의회 의장, 군의원,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철쭉의 한 종류인 자산송 8,000여 그루를 식재했다.

향후 군은 도로 경관 조성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송 209ha, 53만 7,000본을 조립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철쭉은 그 품질과 아름다움이 뛰어나 전국의 공원과 정원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위상이 대단하다"며 "이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완주군 철쭉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정성껏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16억 투입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확대

남원시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5억 747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9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16억 5608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철거 334동, 비주택 철거 65동, 지붕개량 27동 등 총 426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700만원, 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철거는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붕개량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는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건물용도·건물면적 등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평생교육특강 수강생 모집

퍼스널컬러 등 트렌드 반영 교과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분기 평생교육 수시 특강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민들의 학습 공백을 촘촘하게 메울 '촘촘학습'의 교육 과정은 평소 시민들이 배우고 싶었던 주제를 심도 깊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촘촘학습의 교육과정은 △신화 인문학 △어반스케이프 △요리 △영화 인문학 등 직장인을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4개 과정과 △퍼스널컬러 △골격진단과 컨설팅 △꽃바구니 만들기 △생활 원예 등 4개의 일일 강좌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민들은 그리스 신화와 영화를 통해 인문학적 깊이를 더할 수 있고, 퍼스널컬러와 골격진단을 통한 컨설팅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수시 특강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남원시평생학습관 누리집과 남원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각의 교육 과정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남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육유기농, ㈜짚은바다와

해양심층수 유통·판매 협약 체결

인체에 이로운 물을 생산하는 회사와 인체에 이로운 건강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두 손을 맞잡았다.

(㈜짚은바다(대표 장명윤)와 삼육유기농(대표 김호규)은 지난 19일 완주군 운주면 소재 삼육유기농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해양심층수 '사랑해 300' 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장명윤 대표, 김호규 대표, 삼육유기농 심산 사무이사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짚은바다는 심층수를 꾸준히 생산하기로 약속했으며 삼육유기농은 이 제품을 국내·외 유통·판매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해양심층수 '사랑해 300'은 현재 유럽과 쿠방 등 국내·외에서 판매 중이며 지난해 국제파인워터 대회 1등 골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아토피 환자, 혈액순환과 비만 장애로 고생하는 중장년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짚은바다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인체에 이로운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고 있다. 삼육유기농은 완주군 운주지역에서 두유, 김, 식혜, 만두 등 총 600여 품목 건강유기농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국가무형유산 지역 공동체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재)완주문화재단·완주향토예술평화회관(이사장 유희태)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최 및 주관 2025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 연계 지원 사업에 '반갑다 우리무형유산! 김치담그기, 막걸리빚기'라는 프로그램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사업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종목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난해에는 완주향토예술평화회관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인 '김치 담그기' 전승공동체 '우리 김치

품앗이'를 성공적으로 결성한 바 있다.

올해에는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21개 중 김치담그기와 막걸리빚기 두 종목에 선정되어 총 2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완주향토예술평화회관은 오는 5월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반갑다 우리문화유산! 김치담그기, 막걸리빚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희태 이사장은 "우리의 무형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



해야 하며, 이번 체험 기회를 통해 국가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내 전승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육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금호숲속어린이집, 고사리손으로 큰 나눔

삼기면 행정복지센터는 금호숲속어린이집 (원장 이영순) 어린이들이 성금 49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금호숲속어린이집 아이들은 그동안 조금씩 모은 용돈으로 저금통에 동전을 채워 성금을 마련했으며, 삼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이순, 김철)에 전달했다.

삼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애(愛) 물품단 ▲반찬 지원 ▲집수리 지원▲ 등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사업에 성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영순 원장은 “아이들의 작은 저금통 속에 담긴 큰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이순 민간위원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는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값진 나눔의 정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새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 실시

완주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활동을 봉동읍 둔산리 분서초 인근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활동에는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과의 협력 아래 진행됐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가,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소 관계자들에게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올바른 영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예방 캠페인도 진행해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대총동창회, 도내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지원

전북대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 8명 장학금 지원… 신입생 최대 8백만 원·의약학 계열 최대 1천2백만 원

전북자치도는 지난 20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1층 온라인지에서 전북대학교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입생은 재학 중 8학기 동안 최대 800만 원, 의약학 계열 학생은 12학기 동안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일 전북대학교총동창회가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병선 총동창회장이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며

/정혜민 기자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 김경환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최병선 회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총동창회 정관 개정을 통해 지원을 체계화한 만큼 앞으로도 동문들의 뜻을 모아 장학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익산에서 모차르트를 연주하다

백건우와 모차르트' 익산예술의전당서 공연… 피아노 소나타·론도 등 친숙한 곡부터 모차르트 숨은 명곡까지

전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익산에서 모차르트의 세계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백건우와 모차르트' 공연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피아노 소나타와 론도 등 친숙한 곡부터 글라스 하모니

카를 위한 아다지오, 작은 장례 행진곡 등 모차르트의 숨은 명곡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

백건우는 연주를 통해 모차르트의 전 생애를 통찰하며, 자신의 79년 음악 인생과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낼 예정이다. 특히 단조, 장조 작품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모차르트 특유의

감정을 생생하고 아름답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은 전석 3만 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arts.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도도하라사진관, 군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도도하라 사진관에서 재능기부로 경로당 어르신 7명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월명동 소재 도도하라 사진관은 10여 년 전부터 재능기부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촬영해왔다.

이날 사진을 찍은 김모 할머니는 “영정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예쁘게 사진

을 찍어주시 정말 고맙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도하라 사진관 이근배 대표는 “어르신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장수 사진을 남기고 싶어한다는 마음을 알고 재능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며 좋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자치도전주장학숙,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

전북자치도전주장학숙이 혈액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0일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은 전주장학숙과 전북혈액원의 협력으로 입사생과 직원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전주장학숙 주차장 내 전북혈액원 이동헌혈버스에서 진행됐다.

문향금 관장은 “입사생들이 헌혈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기회

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전주장학숙은 2012년부터 매년 2회 이상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정화봉사활동, 연탄나눔봉사, 배식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고창청년회의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고창청년회의소(회장 박재호)가 지난 20일 고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지역 인구 문제 해결과 출생 장려 협약을 체결했다.

고창청년회의소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탬 예정이다.

박재호 회장은 “고창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청년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청년회의소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기부

장수군 산서면은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산서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지호, 임재철)에 전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상대 조합장은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장수군산림조합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철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수선한 시국에 소외될 수도 있는 산서면 이웃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장수군산림조합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탁구협회,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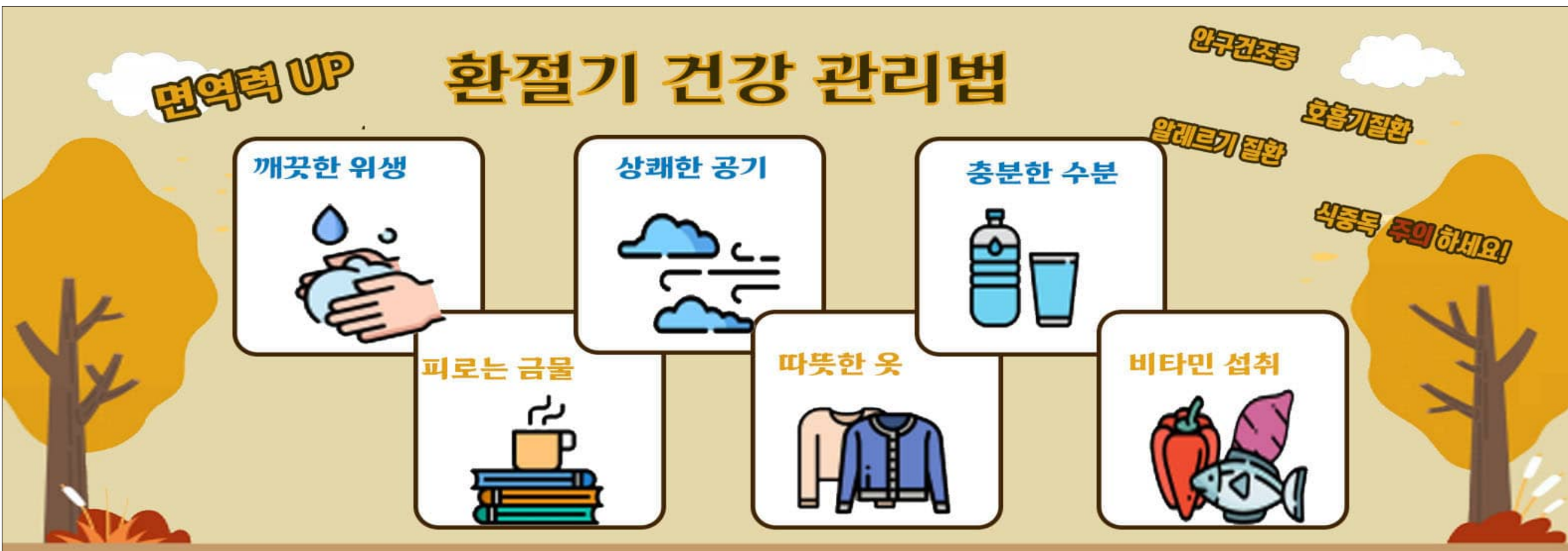
진안군 탁구협회는 지난 20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최병준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라며, “지역 학생들의 꿈을 전적으로 응원한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 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진안군 탁구협회의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 전체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一事一言〉



내란의 빠른 종식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1)

김동준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대혼란과 경제위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현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현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헌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12.3 이후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을 탄핵했다고 적반하장격의 논리를 폈으며, 자기 지지자들이 벌인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감사’와 ‘미안함’을 표시했다.

윤석열은 현재 진술에서나 지난 8일 출옥 후 발언에서 자기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가 내란범으로 구속된 군 지휘관들, 특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병사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어야 했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국민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 게만 주로 감사를 표시했다. 즉 그가 말하는 국민은 오직 자신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

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야당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육성으로나 변호인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애초의 생각을 전혀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사실상 야당 지도부와 ‘수거 대상’인 비판 세력에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령을 경고용 계엄 혹은 ‘계몽령’ 운운한 것은 사실상 말장난인데,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원 체포고문 시도, 노상원의 수거 명단과 ‘처리’ 구상 등에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계엄 당시 군의 모든 행동과 광종근, 홍장원 등의 진술은 거의 일치하며, 현재 재판정에서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사후 발언이나 변명과는 배치된다.

윤석열이 출옥하여 개선장군처럼 행동한 것은 현재에서의 그의 발언들, 즉 비상계엄 선포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통치권 행사였으며, 이후의 수사나 탄핵이 모두 불법적이라는 주장과 같은 궤도 위에 있다. 출옥 자리에서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며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는 ‘전시, 혹은 준전시 상황’, ‘국무회의 의결’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포고령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일 자신이 여러 번 전화로 명령을 내린 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얼골색 하나 바꾸지 않고서 부인했다.

윤석열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보면 그는 조금의 죄의식이나 범법 의식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현재 파괴 투쟁을 할 태세다. 그는 이후의 내란죄나 직권남용 관련 수사에는 거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검찰을 제외한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준다. 즉 탄핵이 되어도 윤석열은 계속 자신의 주장을 쏟아내거나 거리를 확보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실패한 쿠데타 주역이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대 세력을 ‘처단’할 의사를 갖는 매우 역겹고, 기막힌 정치 상황에 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현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윤석열과 변호인들, 국민의힘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이 ‘따른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어이없는 조치가 아니라 ‘전시·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 ‘사실상 전쟁 상황’에서의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한다. 그래서 그들은

비상계엄의 이유가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취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아예 전쟁의 개념 자체를 수정해서 “현대 전쟁은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까지 강변한다. 즉 주관적 범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하가 알고 있는 ‘객관적 상황’을 재정의하려 한다.

사실 정치활동 특히 권력 행사란 언제나 비판 세력의 공격을 받으며 진행되는 싸움이고, 그래서 권력 상실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느끼는 정치 상황이란 언제나 비상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의대생들, 교육과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라

정부와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며 의료계에 내민 ‘출구 전략’이 무색하게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3월 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대학 측의 결단은 사실상 백지화에 가까운 교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는 이마저도 외면하며 스스로 협상의 명분마저 잃어가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정부와 대학의 입장 역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의료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과 진료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할 마지막 기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전격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과 중증 응급환자 진료 체계가 붕괴됐고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다. 일부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병동이 폐쇄되고 수술 일정이 지연되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죽기도 한다. 국민의 고통은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이런 의료 공백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직업 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등을 돌리게 만들 뿐이다.

전북대 의대는 학칙에 따른 합당한 사유가 없는 휴학계는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연한 조치다. 학업은 학생의 권리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휴학

은 교육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대학과 교수진은 학생 개개인과 면담을 통해 학업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 학생을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자까지 보내며 집단적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역이다. 그런 만큼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더욱 엄격히 요구받고 있다.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사실상 유예하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 여론 역시 더 이상의 대립과 혼란이 아닌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피해는 의료계 전체에 돌아간다.

정부와 대학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법과 원칙이 흔들리면 더 큰 혼란과 피해가 초래될 뿐이다. 의대생들 또한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의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교육과 진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탓할 시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갈등의 고리를 끊고, 의료계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금요시선

강/곽재규

내가슴속
건너고 싶은강
하나있었네

오랜싸움과정처없는
사랑의탄식들을대불고

인도,물소처럼,침범침범
그강,전너고싶었네

흐르다가세상밖
어느숲,모퉁이에
서러운등불하나
걸어두고싶었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침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1992년 제10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침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 문창과 교수를 지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03.21(금)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열린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충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문화재열전



금산사 대장전 목조삼존불상과 광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 2017년 11월 03일

-소재지 - 김제시 금산면 오악15길 1

-시대 - 조선시대

내장산 365, 봄 시즌 8봉 환종주 챌린지로 출발!

내장산 마운틴 5446m 8봉 챌린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예약 넘쳐
내장호 둘레길 솔티숲 옛길 운영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걷는 트레킹 코스



내장산 8봉 환종주 챌린지로 시작하는 봄!

정읍시가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브랜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 365' 봄 시즌이 시작된다.

첫 출발은 내장산 8봉 환종주 챌린지, 트레킹 전문여행사인 '승우여행사'와 손잡고 선보인 이 상품은 '내장산 마운틴 5446m 8봉 챌린지'다. 내장산 8개 봉우리를 모두 순회하는 환종주 코스로 총연장은 13km, 소요 시간은 약 6-8시간이다.

지난 15일, 내달 5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두 일정 모두 현재 최대 예약인원 25명을 넘어설 정도로 트레킹과 산악인들의 인기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수준급 산악인은 물론 산을 즐겨 찾는 아마추어 산악인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옛 매표소 옆 내장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 서래봉(624m) - 불출봉(622m) - 망해봉(679m) - 연지봉(671m) - 까치봉(717m) - 신선봉(763m) - 연자봉(675m) - 장군봉(696m)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다.

산행 후에는 시가 스타셰프 이원일과 협업으로 개발한 버섯돈육칼과 등뼈버섯콩탕도 맛볼 예정이다.



신선봉(763m)이 주봉인 내장산은 봉우리들의 높이가 700m 내외지만 각 봉우리마다 독특한 기암으로 이루어져 저마다의 매력을 선사한다. 예부터 '호남의 금강'이라 불린 이유다.

시는 정상에서 저마다의 봉우리에서 펼쳐지는 탁 트인 압도적인 절경은 물론 봄을 맞아 한껏 응축된 내장산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천유수길 봄시리즈 - 「연둣빛 숲길과 야생화의 미소」

이와 함께 시는 중급코스인 「봄꽃 트레킹 내

장호 둘레길 솔티숲 옛길」을 3월 2회, 4월 2회 등 모두 4회에 걸쳐 운영한다. 호수와 숲길, 내장산 풍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봄철 최적의 트레킹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출발 일정은 오는 26일과 29일, 내달 9일과 12일이다.

이 코스는 지난 가을과 겨울 인기를 모았던 내장산 히든로드 산천유수길의 불편인 '연둣빛 숲길과 야생화의 미소'다. 내장호 둘레길을 걷은 후 솔티숲 옛길 - 내장산조각공원 - 용산호 미르샘다리에 이르는 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걸을 수 있다. 연장은 5km, 완주까지 2시간 소요된다. 봄빛 가득한 내장호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내장조각공원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조각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솔티숲 옛길은 걷기 좋은 완만한 능선 숲길과 편백숲의 조화가 멋지다. 빨치산 본거지와 '초빈' 등이 있는 역사 탐방의 길이기도 하다.

용산호 미르샘다리는 기운찬 용의 기운을 느끼며 사색하고 힐링할 수 있는 코스다. 수상데크와 수변데크길, 소나무숲길, 제방길, 대나무길로 이어지는 용산호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차디찬 겨울을 묵묵히 견디고 봄을 맞는 우리 몸과 마음에 절로 생기가 돈다. 여기에 임금님도 탔다

는 정읍의 보약, 쌍화차로 기운을 불어 넣어주면 올 한해 건강 걱정은 잠시 잊어도 된다.

두 코스 모두 서울에서 전용 버스를 타고 정읍으로 이동하여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당일 일정이다. 특히 이원일 셰프의 신메뉴와 쌍화차 맛보기도 포함돼 있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승우여행사 관계자는 "내장산은 사계절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의 최적지"라며 "특히 8봉 환종주 챌린지는 빠르게 매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모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용 고객들의 후기가 이어졌고 내장산의 풍경은 물론 음식과 쌍화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며 "내장산의 사계(四季) 테마 트레킹 상품이 내장산이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업을 통해 정읍의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약 및 문의는 승우여행사 홈페이지(www.swtour.co.kr) 또는 유선(02-720-8311)으로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순창군의의회

희망찬 2025년 푸른봄의 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순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손종석
의 장



이성용
부의 장



김정숙
행정복지지원장



마화룡
경제산업위원장



신정이
의 원



조정희
의 원



오수환
의 원



최용수
의 원